

승모판막치환수술 전후 심장초음파
소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 백병원 흉부외과학교실
최강주, 류지윤, 이양행, 황윤효, 조광현

심장 판막치환 수술후 수술결과의 판정은 좌심방 및 좌심실의 용적변화와 기능 평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주로 심도자 검사 및 심장 초음파 검사로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인제 대학 부속 부산 백병원에서 1985년 이후 1991년까지 순수한 승모판막 질환으로 수술한 승모판막 협착증 41명,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23명을 대상으로 승모판막 치환수술 전후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심장기능의 개선 정도를 보고자 하였다. 좌심방 혈전이 있었던 8례를 제외한 56례는 수술전 심도자 검사도 병행하였으며 심장초음파 소견의 변화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승모판막 협착증군에서 확장말기 좌심실 내경(EDD) 및 수축말기 좌심실 내경(ESD)은 수술후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으나($P < 0.01$) 심박출률(EF)은 수술 전후 모두 정상 범위였고 수술후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P > 0.05$). 좌심방 내경(LAD)은 수술전 상당한 확장을 보이다가($P < 0.01$) 수술후에는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으나($P < 0.001$) 좌심실 후벽 두께(PWTh)는 수술 전후 모두 정상치와 별 차이가 없었다($p > 0.05$).
2. 승모판막 폐쇄부전증군에서 확장말기 좌심실 내경(EDD) 및 수축말기 좌심실 내경(ESD)은 수술전 정상보다 확장된 소견을 보였고($P < 0.05$) 수술후에는 모두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다($P < 0.01$).

심박출률(EF) 및 수축기 좌심실 최소직경 변화율(FS)은 수술전후 모두 정상범위 내였으며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P > 0.05$). 좌심방 내경(LAD)은 수술전 상당한 확장을 보이다가($P < 0.01$) 수술후에는 의미있는 감소를 보였으나($P < 0.001$) 좌심실 후벽 두께(PWTh)는 수술전후 모두 정상치와 별 차이가 없었다($P > 0.05$).